

# 한국 전통주거의 미적 관점에 의한 공간 연계성 연구

## A Study on a Space Linkage of the Korean Traditional Residence from an Aesthetic Point of View

김 중 환\*      박 성 재\*\*  
Kim, Jong-Whan      Park, Sung-Jae

### Abstract

The prim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iew traditional residential space not only as visual and figurative but also experiencing space from the perspective of aesthetics. This study points out that traditional residential space should be perceived as "true space" of connecting people, life and experience. Although it was not clearly defined as a visual entity, the value, phenomenon and experience of space materialized through conjecture and expectation are interpreted as the arena of aesthetics and philosophy. This study aims at drawing a conclusion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residential space, which is perceived as experiencing space centered on objective and subjective human behaviors, makes a linkage to aesthetic elements.

키워드 : 한국 전통 주거 공간, 공간 연계성, 미학적 관점

keywords : Korean Traditional Residence Space, Space Sequence, Aesthetic Point of View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대사회에서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화·개방화·다원화는 다국적 문화의 상이한 현상들에 대한 공존을 강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여러 분야에서 통합과 분리를 발생시키고 사람들은 그러한 변화에 정체성을 상실한 채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기주의, 관계상실, 여유상실, 대량생산의 기계론적 사고 등이 초래되고, 이러한 개념들은 자국의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여 고유한 사회적 특성들을 중요시 생각하게 하는 전통성의 욕구를 초래하였다. 한국도 전통적 문화와 사상에 조화를 이루지 못한 채 도입된 다국적 문화에 의해 독창적 주제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통의 재구현과 전통성 회복에 대한 잠재된 요구들은 표면화되어 가고 있으며 적극적인 방법으로 정체성을 회복하려 하는 시도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전통주거 공간을 인간중심의 의식체계와 사상이 담긴 삶의 공간으로서 단순히 시각적이거나 조형적인 특성이 아닌 체험적 공간으로서의 특성으로 미학적인 관점에서 파악하는데 의의가 있다. 미적 관점에서 파악한 전통주거 공간을 인간과 공간이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생활과 체험의 총체적인 4차원의 참 공간으로 인식하여 실제적인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추측이나 예감으로 공간에 나타나는 공간적 가치·현상·체험들을 심미

적이며 철학적 영역으로 해석하고, 인간생활에 객관적·주관적 행위의 바탕이 되는 인간 중심의 체험의 공간으로서 분석한 가시적, 비가시적인 전통주거 특성들을 공간과의 연계성을 이루는 미적 요소로서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 1.2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전통주거 공간을 미적 관점으로 해석, 공감하는 것이며, 조선시대 반가, 즉 사대부의 주거 공간을 연구의 범위로 한정하였다. 기존의 문헌을 분석한 이론적 자료와 현장조사를 통한 체험적 분석에 의한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1차 연구는 N. 하르트만의 사물, 현상의 미학 해석에 대한 공간의 전경과 후경, 미적 대상의 구조와 존재형태, 건축의 외면층과 내면층에 대한 미학적 이론 개념을 근거로 하여 전통주거 공간의 미적 특성을 관련 선행 연구 내용과 연구자의 관찰, 생활 체험 등을 기초로 하여 18항목의 미적 특성들을 도출하고, 2차 연구에서는 도출된 전통주거 공간의 미적 특성들을 공간과의 연계성을 이루는 미적 요소로서 분석한다.

#### 1.3 연구의 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한국 전통주거 공간을 미적 관점에서 나타나는 공간에 대한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미적 관점에서 분석된 공간을 공간의 연계성 차원에서 새롭게 분석하기 위하여 한정된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내용적 범위는 전통주거 공간을 미적 관점으로 해석, 공감하는 것이며, 시간적 범위는 사례로서 가장 많이 규

\* 정희원, 경민대학 건축인테리어과 교수, 공학박사

\*\* 정희원, 경민대학 건축인테리어과 겸임교수

명되어지고 많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조선시대 주거 공간으로 한정하며, 공간적 범위는 조선시대 주거 공간에서도 반가, 즉 사대부의 주거 공간을 연구의 범위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은 기존의 문헌을 분석한 이론적 자료와 현장조사를 통한 체험적 분석에 의해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첫째, 이론적 고찰로서 미학과 건축미학의 일반적 개념, 건축공간에 대한 개념, 전통주거의 공간적 특성, 공간연계성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여 기초적 연구 자료를 구축하고, 2차 연구에서는 둘째, 공간 연계성에 대한 연구 분석의 단계로서 미적 관점에서 본 전통주거 공간에 대하여 미적 개념들을 관련 선행 연구 내용과 연구자의 관찰, 생활 체험 등을 기초로 하여 도출하고, 그 도출된 개념들을 바탕으로 전통주거의 미적 특성에 대하여 현상적인 미적 특성과 심리적인 미적 특성으로 구체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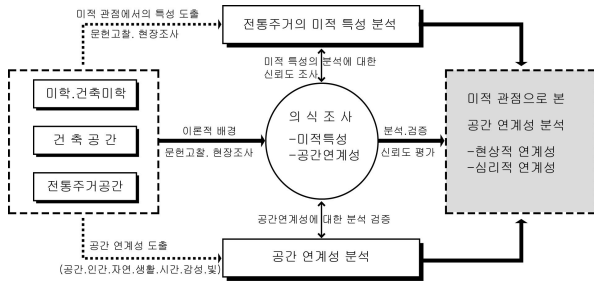


그림 1. 연구의 방법과 내용

## 2. 건축미학의 개념과 전통주거의 공간적 특성

### 2.1 미학의 개념 고찰

#### (1) 미학의 개념

미학의 사전적 의미에는 ‘가치로서의 미, 현상으로서의 미, 미의 체험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 명사로서, 미의 본질과 구조를 경험적 또는 형이상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심미학(審美學), ‘Aesthetics, 미와 예술을 대상 영역으로 삼고 있는 학문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학을 학문적으로 정의하면, 첫째는 예술을 창조·관조하는 인간정신에 있어서 하나의 자연과학이고 둘째는 철학적 및 심리학적 방법으로 미와 예술이 갖는 특성을 밝혀나가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미학은 미에 관한 학문이며 미학의 대상은 미라고 할 수 있다.

#### (2) 미학의 범주

미학의 범주에서 제1은 미의 창조와 향수(享受)에 있어서 인간이 정신이 도입된 내면적 법칙성을 설정하여 미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이고, 제2는 미적 현상의 근저에 놓인 공통의 것을 추구하며, 제3은 정신생활 및 일반문화에 대한 미의 가치를 규명하는 것이다. 미학은 미적 대상과 파악이나 관조나 가치 감각 등의 작용 내지 내면적 현상을 전제하며, 여러 가지 예술적 생산의 작용까지도

전제한다. 미학의 대상 영역은 논리적으로 처리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관적인 인상 또는 개인적인 감각 작용을 보편적인 법칙에 의해서 질서 짓는 것이 불가능하며, 또 미학의 제 현상을 어떤 정신적인 합리성에 의해 통일시키는 것은 불가능하여 이 영역에는 자의, 혼돈, 불규칙성 및 우연성이 항상 지배하고 있다. 미는 하나의 대상으로 통일이 된 두 가지 대상이다. 하나는 실제적인 대상이며 그러므로 감성에 주어지는 것이지만, 또 하나는 실제적인 대상이나 그 배후에서 나타나는 전혀 별개의 비실재적인 대상이다. 따라서 미는 첫째 대상만도 아니고 또 둘째 대상만도 아니라, 오직 양자의 연관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가 다른 하나에 나타나는 것이 미라고 말할 수 있다.

### 2.2 건축미학의 개념 고찰

#### (1) 건축미학의 개념

건축미학은 18세기 중엽 독일의 바움가르텐(A. G. Baumgarten)이 저서 ‘미학, 1750’에서 고대의 감각, 지각에서 유래된 어원적 의미에 따라 감성적 인식의 학으로서 미학을 설정하면서 예술의 한 분과로 건축미학을 세운 것을 효시로 한다. 건축미에 대한 이론을 명확하게 학문의 틀 즉 건축미학으로 성립시킨 사람은 20세기 독일의 쇠르겔(H. Sorgel)이며, 그의 저서 ‘건축미학, 21’에서 고대 이후 전개된 건축이론을 추적하여 체계적 건축론을 시도하였다.<sup>1)</sup> 건축예술의 역사와 양식론으로 체계적 미학을 확립한 헤르만 쇠르겔(Helman Sorgel)은 「건축미학, 1921」에서 일반적인 미학의 문제에는 항상 세 가지 요소가 고찰되는데, 주체와 객체 그리고 주·객의 작용관계이며, 객체 또는 주체만으로는 미적 의미를 가질 수가 없고 미적이란 오직 주체와 객체와의 작용관계 즉 지각내용에 의하여 구해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미학적 연구는 ‘경험적 사실-지각내용의 현상적 분석-규범적 원리의 확립 및 본질의 탐구-본질적 인식에 기인한 형이상학적 가치평가’라는 순환운동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였다.

#### (2) 건축미학의 범주

건축미에 관한 이론을 명확하게 학문의 틀, 즉 건축미학으로 성립시킨 사람은 20세기 독일의 쇠르겔(H. Sorgel)이다. 그는 저서 「건축미학, 1921」에서 고대 이후 전개된 건축이론을 추적하여 체계적 건축론을 시도하였는데 그 건축론은 일반적 미학이 아닌 예술학이었으며 건축은 예술 체계의 일부분으로 취급하였다.

건축미학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예술을 순수미술(자유미술)과 응용미술로 분류하는 방법이다. 둘째는 순수직관 형식으로 제 예술을 분류하는 방법으로 공간과 시간을 분류의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회화, 조각, 건축은 공간 속에 있고 이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간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셋째, 건축을 공간예술로 규정하여 건축의 본질을 입체형식

1) 권태문, 건축미학과의 만남, 시공문화사, 2001, pp.18-26.

으로 립스는 입체형식을 슈마르조는 공간형성을 주장하여 입체형식은 건축에 있어 매스의 형성에 중점을 둔 것이고 공간형성은 건축 내부공간의 형식에 중점을 둔 것이다. 건축미학은 예술의 분류에서 강조된 건축미의 복잡한 성격을 이론적,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것이지만 그 방법은 미학과 같이 철학적 또는 과학적 방법으로 고찰되어야 한다. 건축미를 이데아의 표현으로 설명하려는 것 또는 건축미의 근원을 탐구하려는 것은 철학적 방법에 속하며, 건축미의 원인을 주로 미적 체험이라는 주관적인 면에서 구하려는 심리학적 건축미학(=건축심리학)은 과학적 방법에 속한다. 심리학적 미학의 방향은 미의식의 구조나 형태를 주안으로 하여 표층으로부터 심층으로 들어가려는 것이다.

### 2.3 N.하르트만의 미학개념

미학은 미를 창조하는 자나 감상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 이 양자의 행위나 자세에 의문을 품고 생각하는 자의 것이다. 사상이라는 것은 감상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예술가의 기분을 손상하는 수도 있다.<sup>2)</sup> 미학은 예술 그 자체를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인간은 자기의 내부에서 의식되는 것을 모든 사물과 후경으로서의 세계 전체 속에서 인식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근본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질적인 두 입장을 동시에 주장할 수 있다. 전통 주거공간을 미학적인 관점으로 보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건축에서 보여 지는 외면층과 보여 지지 않는 내면층이 함께 공존하며 공간을 이루듯이 특정한 형태로 진행되는 인간 생활과의 관련이 중요한 점이다.

#### (1) 공간의 인식과정으로서 전경과 후경에 대한 분석

N. 하르트만은<sup>3)</sup> '미학'에서 전경과 후경이 나타내고 나타나는 현상 관계에서 미적 대상이 성립한다고 하였다. 미적 대상에서는 비감성적·실재적인 부분과 감성적·비실재적인 부분이 구분되어 전자를 전경, 후자를 후경이라 한다. 그러므로 미적 대상에 있어서의 미의 소재는 오직 전경만도 아니고, 또 오직 후경만도 아니며, 전경이 후경에 나타나는 현상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미학적 가치 현상은 현상적(의장적) 미적 대상과 심리적(정서적) 미적 대상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며 현상적 대상은 가시적 전경으로서 비감성적이며 실재적인 본질에 관여하는 현상이며, 심리적 대상은 비가시적 후경으로서 감성적이며 비실재적이 정신이나 생활양식에 관여하는 현상이다.

전경과 후경, 실재와 비실재를 나타내는 하르트만 이론은 다음의 그림으로 종합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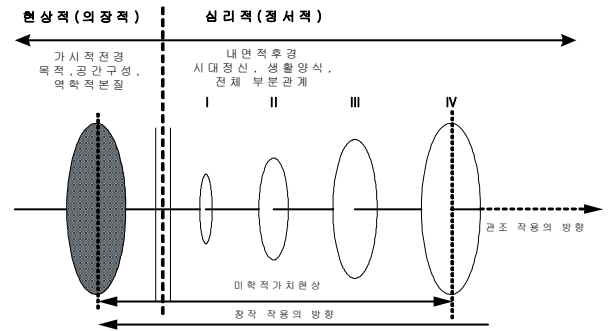


그림 2. 건축미적 현상의 연계성

#### (2) 미적 대상의 구조와 존재형태에 대한 분석

미는 하나의 대상으로 통일이 된 두 가지 대상이다. 하나는 감성에 주어지는 실재적인 대상이며, 또 하나는 실재적인 대상이나 그 배후에서 나타나는 전혀 별개의 비실재적인 대상이다. 따라서 미는 첫째 대상만도 아니고 또 둘째 대상만도 아니라, 오직 양자의 연관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가 다른 하나에 나타나는 것이 미라고 말할 수 있다. 미적 대상의 존재 방식은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거기에는 두 가지 종류의 대상, 따라서 두 가지 종류의 존재, 즉 실재적인 존재와 비실재적이며 현상적인 존재가 겹쳐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존재가 전혀 이질적이면서도 대상이 분열되거나 비통일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 두 성분간의 관계는 것처럼 긴밀한 것이어서 이것을 기능적 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대상의 미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역할은 별개의 비실재적인 것을 나타나게 하는 실재적인 것에 있다.

미학을 예술철학에 불과하다고 보는 경향이 적지 않다. 그러기에 오늘날까지 예술의 가치를 다소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일반적으로 예술 가치를 과장하는 반면에 모든 자연미를 경멸하는 경향이 있다. 미가 어디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가리지 않고 우선 미 일반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여기서는 인간미나 자연미도 동등한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미적 측면을 가진 것이 많으며 인간은 항상 자연만이 아니라 완전한 정신의 세계도 가지고 있다.

#### (3) 건축의 외면층과 내면층에 대한 분석

건축에서 인간의 생활이 나타나는 건축은 생활에 포함되는 것이며 생활을 관망하는 것이다. 건축에서도 후경이 분열되며 계층적 서열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실재적인 전경과 비실재적인 후경과의 사이에서만 구별되고 할 수 있다.

##### ① 건축의 외면층

건축이 어떤 실용적 목적을 충족시키는 점, 공간적 균제 속에서 진행되는 점, 무정한 재료의 저항과 싸워야 하는 점에서 출발한다.

2) N.하르트만, 전원배 옮김, 미학, 을유문화사, 1995, pp.17~20.  
 3) Nicolai, HARTMAN.(1882.2.20~1950.10.9): 독일 라트비아의 리가 출생, 돌파트대학교·마르부르크대학에서 공부한 후 1920년 마르부르크대학교 교수, 1925년 쾰른대학교 교수, 1931년 베를린대학교 교수를 역임. 처음에는 신칸트학과 내의 마르부르크학파로 출발하였으나 후에 그 관념론적·주관주의적인 입장을 버리고 자신이 신 존재론이라 부르는 객관주의적·실재론적 입장으로 전환하였다.  
 (출처:두산세계대백과사전)

• 목적 구성 (설계도에서 가장 명백하게 나타남)

유기적이고 내적인 구성이라야만 실제적 측면에서 출발하는 과제의 참다운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이며, 그러한 연후에 비로소 실제적 목적이 허용하는 가능한 해결이 미적 형식의 관점에서 선택되는 것이다. 목적 그 자체의 처리 속에 이미 미적 형식의 관점이 작용하는 것이다. 목적이 주제의 역할을 하며 따라서 건물의유기적 구성 속에 결합되어 들어가기 때문이다.

• 공간 구성 (균제 · 질량 분배)

질량 관계의 사소한 등차를 발견하여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할 줄 아는데 천재적인 건축가의 예술이 있는 것이다. 그것은 공간 형성의 본질적 효과가 바로 질량관계의 등차에 매여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 질량관계나 분배원리(질량의 조직과 분배)는 개별적인 제 공간의 내면 형성에도 타당하며 건물 전체의 외면적 건축방법에도 타당한 것이다. 장엄한 건물인 경우에는 그 외에 또 대소 관계가 크게 작용한다. 이 대소의 효과는 그것이 공간구성에 얼마이듯이 건물의 실제 크기에 결정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 역학적 구성(재료의 사용과 그 고유 범칙성의 이용)

건축은 실제적 목적에 의한 구속되어지고, 또한 재료에 의한 구속을 받는 예술이다. 건축의 재료는 거칠고 물질적인 것이며 건축의 목적에 따라서 선택이 가능하지만 그 선택의 여지가 극히 한정되어 있으며, 특정한 방식으로만 성취되는 경우도 있다.

② 건축의 내면층

건축물에는 특정한 형태로 진행되는 인간 생활과 그 본질이 나타난다. 여기서 건축물의 외층과 내층과의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형성된 생활과의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내층이 없을 뿐 아니라 외층도 없다. 즉 외층이 깊으면 내층도 깊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건축물의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내층을 구별할 수 있다.

첫째, 목적 구성의 있어서의 해결의 정신 또는 의의

실제적 과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파악되고, 따라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결되는 것이다. 결정은 관점에 의해 이루어지며, 관점은 흔히 생활양식 특히 공동생활의 양식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둘째, 공간 구성과 역학적 구성에서 기인하는 부분과 전체의 모든 표현.

특수한 구성적 이념의 추구가 없이 실천적 목적을 실현하기가 불가능하듯이 사람이 창조하는 제 형식에 특정한 표현을 부여함이 없이 공간적 구성과 역학적 구성이 성립하기가 불가능한 것이다.

셋째, 생활 의지와 생활양식의 부각.

이 내면층을 건축물에 있어서의 이념의 계층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 계층은 실제적으로 보여 지는 것과는 거리가 가장 먼 것이다. 그러나 이 계층은 사원 · 성당 문화 시설 · 궁전 기타의 경우와 같이 어떤 이념적인 목적을 가진 모든 건축물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건축의 이러한 내면층을 생활 의지의 계층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개인주의적인 의미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즉

공통하는 특성과 동경을 가진 인간 공동체의 의미로, 간단히 말하면 실제하는 객관적 정신의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sup>4)</sup>

2.4 전통주의의 공간적 특성

(1) 전통의 개념

전통(tradition)이란 말은 라틴어 tradition 에서 유래한 것으로 계속되다(continuing), 양도하다(handing over)를 의미한다. 즉, 연속성(continuity)과 영구성(permanence)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것은 또한 시대의 흐름을 통해 그 지역의 특성과 풍토, 생활양식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것으로 인간의 선택된 지혜에서 발생하게 된다.<sup>5)</sup>

전통이란 푸이용(J. Pouillon)이 「민족학, 인류학 사전」(1991)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지속되어 현재에도 전해지고 계속 살아 움직이며, 그것을 받아들여 다음 세대에 전하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그 무엇”이다.<sup>6)</sup> 전통은 모방이 아니라 창작과 미학의 논리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사고체계 안에서, 유형과 유형학에 대한 해석은 전통적 요소들이 공간형태의 보편적 이미지 생성요인으로 작용하여 디자인에 반영됨으로써, 한국적 정서를 기반으로 창출해낸 생활의 부분으로서의 효용적 의미를 부여하여 한국적 이미지를 지속시키는데 논리적 가능성을 제공할 것이라 본다.<sup>7)</sup> 전통이란 진행 중인 재생산 과정으로 과거의 재현(representation)과 오늘의 현존(presence), 그리고 미래의 창조 (creation)까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래는 전통을 포용하여야 하며, 이러한 전통은 그 민족의 내적 형성 정신(informing spirit)의 파악 없이 문화적 발달과정을 밝힐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인간이라는 행위자와 그 문화적 창조물은 항상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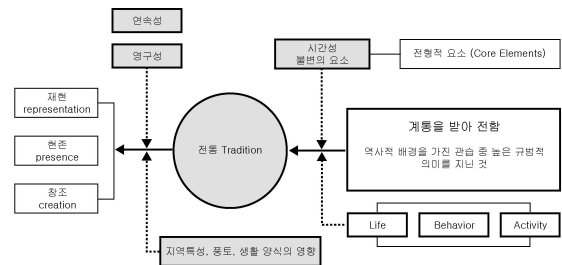


그림 3. 전통성의 개념

전통성의 표현 중 하나는 형식추구의 문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표상의지에 대한 문제이다. 전통에 대한 논의에서는 두 가지의 주요관점이 발견된다. 첫째로 전통이 변하고 발전하는 것이며, 과거에 이루어져 정지 되어 있

4) N.하르트만, 상계서, pp.244~245.  
 5) Andreas C. Papadakis · Lucien Steil, Tradition · Arxhitecture, MIT Press, 1987, pp.32-40.  
 6) 장피에르 바르니에 저, 문화의 세계화, 주형일 역, 한울출판사, 2000, p.16.  
 7) 박경애, 문화기호로서 한국전통공간의 해석과 의미론적 공간 디자인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박사논문 국민대 테크노 디자인대학원, 2004, p.63.

지 않고 동적인 속성을 갖는다는 점이다. 둘째로 그 역사적 생명력이 현재의 삶에 의미와 효용을 지닌 문화유산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전통이라는 것의 개념은 오랜 세월을 통해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는 원형적 요소로, 자연히 현대와 결부되어진다. 즉 그것을 논하는 시점에서 소급되어지는 ‘시간성’과 생활로서 체험되고 공감되는 ‘공간성’이 동시에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다.<sup>8)</sup>

(2) 전통주거의 일반적 특성

건축에 있어서 공간이란 것도 인간의 개체화 의식이 연관되는 한에 있어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즉, 공간 속에 있는 어떤 대상의 위치는 다른 어떤 대상과 관련지어서만이 정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존재와 의식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건축행위의 기본적 탐구대상이기도 하다. 이 땅의 문화 풍토와 삶의 행태는 한국인으로서의 나의 감성을 동시대의 서구인과 차별화를 갖게 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국 전통건축은 서로 유기적 관계를 갖는 하나의 연속된 공간체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과정이 있는 공간으로 전개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전통주거 공간에는 전이성, 가변성, 연속성, 영역성, 방향성, 위계성, 개폐성 등의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분석의 틀인 공간의 연계성(Linkage)이란 단순히 연속(continuance)이나 연결(connection)로서가 아닌 연속과 연결을 모두 포함한 의미로 해석하여 공간의 전이성과 가변성, 연속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특성이라 전제하고 공간의 연계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전이성, 가변성, 연속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전이성(Transition)

인간의 행동은 목적지까지의 접근 방법, 목적지의 도착 및 주요 행사, 되돌아오거나 다른 곳으로의 이동 등으로 연계되고 각각 단위 행동이 체계 속에 전이 된다. 이러한 생활 정서의 요구를 전이성이라 하고 그 요구를 수용하는 공간을 전이공간이라 한다.<sup>9)</sup>

전이란 ‘위치 등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으로 ‘변화’나 ‘이동’등의 뜻을 내포하는 개념이며, 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요소를 연결. 매개시키는 중간과정’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 이러한 의미를 공간이라는 요소와 연관시키면, 시간적·심리적·물리적·복합적인 면에서 생각할 수 있으며 연속, 전개, 변화 등의 의미를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전이 현상은 인간의 이동 행위뿐 아니라 시각의 이동이라는 감각적 체험을 통해서 일어나므로, 전이성은 연속되는 이질적 요소 사이의 중간과정을 의미하고, 두 요소가 가지는 이질성의 격차는 전이적 양상(포함, 상호침투, 병치, 매개)의 기능으로써 공간간의 연결 기능을 가진다. 각 공간들은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변화를 갖게 되며 사람이 진행방향을 바꿈에 따라 공간의 독립적인 성격은 깨어지고 대신 공간의 개방성과 방향성이 나타난다.<sup>10)</sup>

전이공간은 기능적으로 양쪽의 영역이 소유하지 못하고 공유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하나의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움직일 때에는 완충공간을 거치게 되는데 이곳이 적극적인 전이공간이 된다.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공간간의 원활함을 위하여 기능적 전이가 필요하며 외부공간-반 외부 공간-전이 공간-반 내부 공간-내부공간의 기능적 전이를 통해 공적-반공적-반사적-사적 공간의 영역을 제공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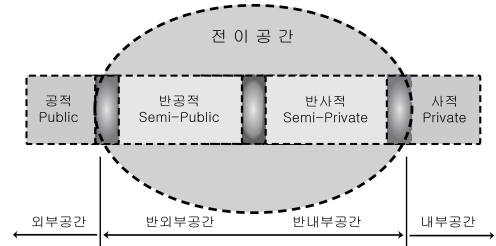


그림 4. 공간영역의 기능적 전이

구체적인 전이공간의 기능은 급격한 변화를 완화시키는 완충기능, 공간의 범위를 구획하는 한정기능, 다른 공간사이의 이동체계를 설정하는 연계기능, 공간의 효율을 높이고 공간체험의 풍요로움을 제공하는 다양성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이가 일어나는 전이점(Thresholds of transition)은 인접한 영역사이에 경계에 위치하며, 통로(path)상의 결절점 등이 된다. 전통건축은 내·외부 공간단위의 집합이라는 영역적 본질을 가지므로 전이점들은 내부보다는 외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대문이나 문간, 문턱 등과 같은 출입구는 수평적인 전이점, 계단과 기단 또는 축대와 같이 위 아래로 레벨이 변화하는 지평면의 전이점, 처마 밑이나 누다락의 밑 등 벽이 뚫려있어 통행 행위가 일어나는 반 외부의 지붕면의 전이점들이 있다. 그러나 전통공간의 전이는 쉽사리 인식하기 어렵다. 완성도가 높게 변화하는 연속적 공간으로 이끌려 들어갈 경우 그 완벽한 기능과 분위기 때문에 오히려 전이현상을 인식하지 못한다. 전통공간의 전이현상을 인식하려면 섬세한 체험과 주의를 필요로 한다. 한국 전통공간의 뛰어난 특성이다.<sup>11)</sup>

표 1. 전이공간의 기능

전이공간의 기능	내용
완충 기능	성격, 기능, 구조가 서로 다른 공간사이에 삽입되어 이들 사이에 존재하는 급격한 변화를 완화시키고 여기서 이루어지는 인간 행태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든다.
한정 기능	독자적인 기능, 성격, 구조를 갖는 공간영역의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공간의 범위를 구한다.
연계 기능	독립된 공간과 공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인간 행태의 루트를 제공함으로써 서로 다른 공간사이의 이동체계를 설정한다.
다양성 기능	독자적으로 존재하여 단위공간의 다양한 관계화 성격을 부여하면서,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간체험의 풍요로움을 제공한다.

8) 박경애, 상계서, p.63.

9) 정무용, 생활정서와 공간의 전이성, 대한건축학회지 ‘건축’, 1984, pp.9~10.

10) 김진균, 시각구조분석에 의한 건축공간의 해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994, p.76.

11) 김봉렬, 전통건축 속의 공간적 전이, 대한 건축학회 ‘건축’

② 가변성(Flexibility)

전통주거 공간은 한가지의 모습으로 고정되지 않은 채 수시로 변한다. 변화를 유발하는 요인도 다양하다.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와 행태, 집에서 일어나는 행사,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는 빛의 상태, 계절에 따른 기후 요소 등 다양하다. 변화를 유발하는 순환성을 만들어 내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다음을 들 수 있다.

첫째, 전체구성이 가변적이다. 전통주거 공간은 사각형이라는 핵에 해당되는 작은 공간 단위가 증식과 분화를 통해 복합 구성으로 확장한다. 하지만 개별 단위의 정형성이 지켜지고 전체를 지탱하는 축 질서가 있기 때문에 가변성에 의한 혼란은 없다. 즉, 가변적이지만 기본적인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내부와 외부 사이에 차별이 없다. 이런 특징은 불교의 공간 개념에서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불교에서는 공간을 사람의 인식과 무관한 초월적 상태로 정의하며, 내 외부의 무차별은 도가에서 자연과의 일체라는 경험적 개념으로 정의한다. 자연과의 일체는 도가 사상 전반에서 일관되게 반복되는 가르침이다.

셋째, 창과 문의 크기와 위치가 서로 다르다. 동일성이 배제된 다양성의 개념이다. 창과 문은 공간 내에서 이동이 일어나는 관문이다. 생활 살이를 이루는 인공과 자연의 모든 매체들이 통하는 곳이다. 이때 골격의 크기와 위치가 결정된다.

넷째, 창과 문의 열리고 닫힘이 다양하다. 개폐 조절이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다양성은 열고 닫히는 정도, 열고 닫는 방식, 위치와 크기에 따른 변화 등 세 가지 내용으로 구체화 된다. 문은 창을 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활짝 열면 반대로 개방감이 극대화된다. 양극단 사이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중간 상태는 그만큼 다양해질 수 있다. 향과 빛까지 활용하면 중간 상태의 다양성은 배가 된다.

다섯째, 공간의 전체 윤곽 및 이것을 짜는 골격이 비육신적이다. 3차원적이긴 하지만 딱딱하고 고정적인 매스감을 갖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공간의 골격은 최소한의 열개만 만들 뿐 그 이상의 형식을 강요하지 않는다. 이런 특징은 구조 방식이 목조 가구식이라는 점과 창과 문의 재료가 창호지라는 점에서 기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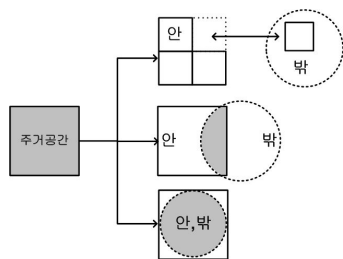


그림 5. 내 외부 공간의 가변성

③ 연속성(Continuity)

연속 자체라는 말은 그 건물을 향해서 건물을 통과하

1993, p.16.

고 체험함에 따라 우리에게 부여되는 경험의 연속체계이다. 이처럼 연속성에는 시각적 연속성과 시간적 연속성이 있다. 시각적 연속성이란 움직임에 따른 시각적 형태의 변화로서 그 자체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연속성의 개념은 현대에 들어서는 단순한 연속이 아닌 각각의 공간이 특성을 지니는 일정한 성격에서의 연속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공간연결에 있어서 매우 자주 인용되는 연속성의 범칙은 단순히 공간의 직접적인 융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공간의 연속성이란 공간의 인식이나 지각적 측면에서의 연결이며, 이는 공간에 내포된 가치체계나, 시지각적 경험의 연속성 부여를 위한 공간 구성요소의 적절한 사용에 의해서 얻어질 수 있다.<sup>12)</sup> 공간의 연속성은 몸체를 하나로 하지 않고 여러 체로 나누면서 발생하는 칸<sup>13)</sup>의 개념에서 추론할 수 있으며, 체와 체 사이에는 크고 작은 공간(마당 또는 틈새)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그 공간의 틈새는 빛(자연)을 끌어들이는 원천이면서 ‘길’이다. 공간의 연속성은 시선의 연속을 통하여 하나의 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공간적인 측면에서 그 영역이 계속 넓혀지는 것을 의미한다. 내부 공간 사이에도 공간의 연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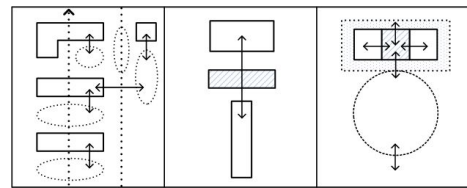


그림 6. 내 외부공간의 연속성

④ 공간 연계성의 개념(Space Linkage)

본 연구에서의 공간 연계성(Space Linkage)이란 전통 공간의 특성에서 살펴본 전이성, 가변성, 연속성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서 존재한다. 완충 기능, 한정 기능, 연계 기능, 과정적 기능, 사이의 기능, 다양한 목적을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기능을 모두 포함하는 전이성과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와 행태, 집에서 일어나는 행사,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는 빛의 상태, 계절에 따른 기후 요소 등 다양한 가변적 요소와 서로 유기적 관계를 갖는 연속된 공간체계를 구성하는 연속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공간 연계성을 정의한다.

한국의 전통주거 공간은 단순한 3차원의 입체만을 가지고 있는 비 물체의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아닌 시간과 인간의 생활 체험이 포함되는 총체적인 4차원의 공간으로서 다양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또한 한국 전통주거 공간에는 생명의 가치까지도 존재한다고 할 수 있

12) 강민구, 추사고택의 공간구성 특성에 관한 연구, 단국대 석사논문, 1998, pp.23-24.

13) 간(間)의 개념은 두 공간이 인접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방법으로 간의 단위공간들은 실(室)의 개념인 주공간과 개체와의 종속관계와 같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전통주거 공간에서는 개폐방식을 통해 연속적 공간을 유지하는 비 확정적인 공간체계를 갖게 한다는 의미에서 연속성에 대한 특성으로서 서술.

다. 이러한 가시적인 특성 뿐 아니라 비가시적인 특성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한국 전통주거 공간만이 가지는 공간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간적 특성들은 고유의 특성 자체로는 또 다른 가치를 창조해 낼 수 없다. 그러므로 공간적 특성 안에서도 공간과 연계되어 나타날 수 있는 요소들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공간과 연계시켜 공간의 변화를 현상적이거나 심리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항목을 보면, 공간의 가장 기본적 요소로서 현상적이거나 심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의 변화를 관여하는 생활(삶, 행태)을 중심으로 하여 공간, 인간, 시간이 각각 다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며, 자연적 요소가 공간에 다양한 변화요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므로 공간과 연계되어 나타날 수 있는 요소들로 생활(삶), 공간, 인간, 시간, 자연요소를 선정하여 공간과 생활(삶), 공간과 공간, 공간과 인간, 공간과 시간, 공간과 자연 등의 공간 연계성으로 나누었다. 공간과 인간의 연계에서는 인간의 감성이, 공간과 자연에서는 빛이 변화의 요인으로서 크게 작용하므로 더 세분화 시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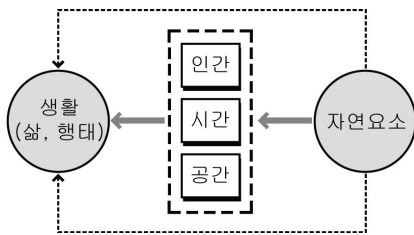


그림 7. 공간 연계성의 요소

### 3 미적 관점으로 본 전통주거 공간 분석

#### 3.1 미적 관점에 대한 분석

##### (1) 미적 관점에 대한 분석

한국 전통주거 공간을 하르트만의 미적 관점에 대한 이론을 근거로 분석하려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한 형태로 진행되는 인간 생활과의 관련이 중요한 점이므로 인간의 생활과 본질이 건축물에서 나타난다. 이때 건축물에서는 내층과 외층이 형성되어 서로의 긴밀한 관계로 시각적으로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지만 관습이나 풍속, 행태 등 건축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인 부분이 나타난다. 이렇게 전통주거 공간에 나타나는 현상적이거나 심리적인 요인들로 인해 주거 공간이 형성되며, 그렇게 형성된 공간에 대한 분석을 내층과 외층의 미적 관점을 근거로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 건축이 다른 예술과 다른 점은 건축 형식이 개성을 토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전통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집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의 주위를 끄는 실제적 대상이기 때문에 건축방법에 있어서 인간의 건축적 감각이 전적으로 특정하게 부각되는 형식에 집착한다고 할 수 있다. 건축형식이 전통이라는 기반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모든 사회 형태의 후면에는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즉 건축에 있어서 안정한 것은 바로 내면층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내면적이고 궁극적인 것이 이념의 계층이다.

셋째, 개인적 정신뿐만 아니라 시대의 공통적인 정신적 생활이 되고 있는 역사적·객관적 정신도 실제적 세계의 전 존재층에 지지되고 있다.

넷째, 어느 풍경을 미적으로 향수하는 자나 그것을 실천적으로 평가하는 자는 단순히 감성적으로 주어지는 실제적인 것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이다.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이 실제적인 것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며 그들에게는 직접적으로 보이는 것의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발견되며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다섯째, 비감성적인 후경이 감성적인 전경 속에 나타나려면 그 후경을 나타내기 적합한 어떤 종류의 질료에 특정한 형식을 부여해야 한다. 이것이 미적 형성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후경의 각 계층도 앞의 계층은 반드시 뒤의 계층이 나타날 수 있도록 형성되어야 한다. 생명은 아무런 물질적인 것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보다 고차원적인 정신은 모든 심적인 것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학을 통해서 관심을 갖고 밝히려 하는 문제의 핵심은 건축에 관한 경험의 본질이며, 그런 경험의 원인이나 이유, 또 그 경험과정 등이다. 건축을 경험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경험한다는 것은 어떤 행위인지가 중요한 것이다. 건축경험은 감각과 지각과정을 거쳐 지식과 기억으로 축적되는 과정으로 심리적 과정의 관찰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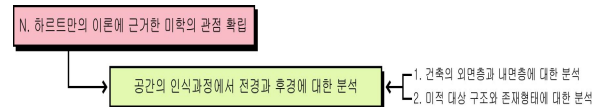


그림 8. 미적 관점의 이론(N.하르트만)

#### 3.2 미적 관점에 의한 공간 특성

##### (1) 선행 이론자의 미적 특성

###### ① 선행 문헌 목록

전통주거 공간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꾸준히 되어 왔다. 전통 주거 공간을 미학적 시선으로 바라본 연구는 그러한 공간의 특성에 대한 연구 중 일부분으로서 소극적인 방법으로 논의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고유섭, 주남철, 임석재, 권삼윤, 신영훈, 우경국, 김경수, 강영환, 류경수 등은 전통건축의 문화, 특성의 연구 중에 미학 관련 내용을 각종 문헌이나 논문, 학회지, 단행본 등으로 발표하여 왔다. 기존 연구되어 온 전통 주거공간의 선행 문헌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2. 선행 문헌 목록

저자	저서	발행	년도
강영환	집으로 보는 우리 문화 이야기	웅진닷컴 기문당	1992
	한국 주거문화의 역사		1998
권삼윤	우리 건축 틈으로 본다	대한교과서	1999

김경수	건축미학산책	발언	2000
류경수	우리 옛 건축에 담긴 표정들	대원사	1998
신영훈	한옥의 고향 우리 한옥	대원사 현암사	2000 2000
안영배	한국 건축의 외부공간	보진제	1978
윤장섭	삶의 길목에서, 한국건축문화의 아름다움 편	기문당	1994
임석재	한국 전통건축과 동양사상 우리 옛 건축과 서양 건축의 만남	북하우스 대원사	2005 1999
정무웅	생활의 건축	기문당	2004
주남철	한국 전통건축에 나타난 미적 특징, 미의식, 미학사상. 한국미학사론, 공집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일지사	1994 2003
최부득	건축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미술문화	2001
고유섭	한국미술사급미학논고	통문관	1966
우경국	관계, 흐름, 건축	현대건축사	1998

② 선행 연구자들의 미적 특성 정리

표 3. 선행 연구된 미적 특성과 이론자

미적특성	내용	이론자
구조의 미	구성되는 구조 원리의 무변형. 노출. 군더더기 없는 최소성 및 이것으로부터 얻어지는 구조적 효율성. 독특한 결구방식의 목구조.	임석재, 신영훈, 강영환, 권삼윤, 주남철
바라봄의 미	주변 환경이나 배경에 의한 다양한 한국미의 아름다움을 바라봄. 내부에서 외부, 외부에서 내부를 바라보며 느낄 수 있는 미.	임석재, 신영훈, 최부득
절제의 미	두 가지의 색과 몇 개의 선만으로 나타나는 추상 입면. 전통의 목구조는 3차원의 구조체를 2차원으로 투영. 회화성이라는 새로운 미학적 가치를 제시하는 특징.	김경수, 임석재, 우경국
질서의 미	부분적 대칭들이 모여 전체로서 비대칭을 이룸. 대칭적 배치를 자유롭게 흐트러놓아 대조시키는 방식. 비정형적 질서를 하나의 독립적 가치로 받아들임.	신영훈, 김경수, 안영배, 임석재, 정무웅
해학의 미	느낌이나 미적 경험을 전달하기 위한 문화적 언어 표현. 무언가의 형태를 가리키거나 연상시키려는 의도. 전체 형태보다는 한 부재, 요소 등을 파격적으로 도입할 때 성립.	김경수, 신영훈, 임석재
신체의 미	건물의 사용과 규모, 크기의 인체 기준. 인체의 크기가 치수의 척도	주남철, 임석재, 안영배, 최부득, 강영환, 윤장섭
은유의 미	기와지붕의 곡선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이 하늘로 부상하려고 하는 모습을 상징화한 것. 초가지붕은 반대로 땅의 신령에 승복하듯 땅에 엎드리는 형상을 상징화한 것. 공간의 의인화.	김경수, 임석재, 강영환
선의 미	한국의 건축은 기둥, 기단, 용마루, 처마 등의 선적 구성. 구조체가 하나의 선으로 부각됨으로써 그 조형의 기저에 선적 구성을 이룸.	권삼윤, 이어령, 강영환, 주남철, 김경수

재료의 미	미 가공된 나무로 세워진 기둥, 비정형적이지만 쌓는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돌, 자연에서 쉽게 얻어지는 재료의 사용.	권삼윤, 김경수, 강영환, 최부득, 임석재
소박의 미	무기교의 기교, 무계획의 계획은 기교요 계획이 생활과 분화되기 이전의 것으로 구상적 생활 그 자체의 생활본능의 양식화로서는 나오는 것. 화려함보다는 수수함, 소박함, 덤덤함과 같은 자연스러운.	김경수, 고유섭
빛의 미	빛에 비추이고 반사되며 그림자가 생겨 건축의 벽을 만들고 공간을 만들. 한지를 곱게 바른 창호는 외부의 빛을 그대로 안으로 들이지 않고 순화시켜 끌어 들임.	권삼윤, 최부득, 신영훈, 임석재
축의 미	계단을 통해 이동 방향을 좌우로 바꿔 경쾌한 리듬감을 줌. 속도의 완급을 조절하고 시선 방향을 결정하며 주변 환경과의 관계에 리듬감을 부여. 개별 단위의 정형성이 지켜지고 전체를 지탱하는 축질서.	임석재, 정무웅
비움의 미	건축을 이루는 물질들은 실체지만 그 실체가 이루는 것은 빈 공간. 공간의 본성을 가장 솔직하게 형상화.	권삼윤, 주남철, 김경수, 임석재, 최부득
투명의 미	한국 전통 건축의 투명하고 열린 공간은 주위 사람들과 더불어 살겠다는 한국인 특유의 집단의식이 반영된 결과.	임석재, 안영배
어울림의 미	어울림에는 위계, 개체, 집단, 도덕, 조화의 다섯 개념이 연관. 위계의 표현으로부터 시작.	임석재, 최부득, 윤장섭
비대칭의 미	지형에 대한 순응으로 자연적으로 비대칭 배치. 한국 전통건축의 지속적 공간 구성 원리로서 비대칭과 공간의 역동성과 율동이 강조.	신영훈, 주남철, 김경수, 임석재, 안영배, 윤장섭
사이의 미	건축과 건축 사이의 공간은 건축간의 관계, 건축들의 집합, 건축들과 혼재된 관계에 의한 풍요로움 등이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현상.	권삼윤, 최부득
각의 미	사각형 마당의 아늑한 공간은 건축적 깊이가 심화된 공간.	임석재, 최부득
융합의 미	자연환경으로 인해 지세에 맞추어 집을 짓는 공간구조. 자연과의 융합이 건축조형에 근본원리	주남철, 김경수, 안영배, 최부득, 강영환, 윤장섭
착시의 미	사선은 평온을 깨는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역동과 활성을 상징.	임석재, 주남철, 윤장섭
틈의 미	전통건축은 바람을 통하여 숨을 쉬는 건축. 시간, 공간, 장소의 개념을 포괄하여 사이, 연속, 무한의 의미.	길성호, 신영훈, 임석재, 최부득, 권삼윤
중용의 미	전통적인 불이(不二)사상이 기본배경. 중첩과 관입으로 인한 폐쇄적 단절이 아닌 연속적 공간관. 내·외부 공간은 하나의 공간.	임석재, 류경수, 윤장섭
낭만의 미	건축이 자연의 일부로 귀속되는 낭만성. 전통건축에 나타나는 개별적 다양성과 변화무쌍한 상대성은 낭만적 자연관에서 도래.	임석재, 최부득
뜸의 미	긴 동선을 지나는 사이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뜸의 시간을 통해 삶을 숙성시킴.	권삼윤, 최부득, 정무웅



원통의 미	실내의 순환성이 대표적 특징. 전체 구성이 가변적, 내부와 외부 사이에 차별이 없음, 공간의 전체 윤곽 및 이것을 짜는 골격이 비유 신적인 원통성.	입석제
유연의 미	지붕의 처마선과 용마루선의 유연한 곡선. 실의 양 끝에서 잡아당겼다가 어느 정도 늦추어 줄 때 실 자체의 자중에 의해 형성되는 선의 유연.	주남철
형식의 미	전체 윤곽의 외관 형식, 공간 단위의 나단계, 원통형 순환 공간의 특징을 가진 복합구성을 통해 구현.	입석제
반복의 미	건축에 나타나는 무늬가 동일하고 그 나타나는 건축의 부위가 다름으로 손쉽게 변화와 통일성을 이룸. 동일 주제의 반복으로 통일성	주남철

(2) 공간 연계성에 의한 미적 특성

선현 연구자들의 이론을 분석한 결과 28항목의 미적 특성들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이 항목들은 부분적으로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예 : 선의 미적 특성과 유연의 미적 특성, 축의 미적 특성과 질서의 미적 특성과 놓여짐의 미적 특성 등), 명칭만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예 : 비움의 미적 특성과 중용의 미적 특성, 어울림의 미적 특성과 융합의 미적 특성 등), 전통주거의 전체적인 특성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모호한(예 : 원통의 미적 특성, 형식의 미적 특성 등) 항목들도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표 4. 전통주거의 미적 특성

미적특성	내 용
선의 미학	기둥, 기단, 용마루, 처마, 창살 등에 나타나는 선의 유연성.
구조의 미학	구성 원리를 보여주는 구조의 뼈대에서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
바라봄의 미학	공간을 통해 자연과 삶의 아름다움을 관망하는 여유미.
틈의 미학	특정 용도나 목적이 없어 고정감을 주지 않는 공간의 여유와 트임.
절제의 미학	공간의 입면에 나타나는 흰색과 갈색, 선의 추상을 보는 듯한 담백함.
사이의 미학	주변 단위공간과의 관계, 상황에 따라 역할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변화의 미.
빛의 미학	자연, 공간, 재료를 통과하며 나타나는 흑이나 백이 아닌 제 3의 영역으로 구분되는 미.
해학의 미학	문의 위치나 형태, 크기에 따라 인간의 진입방식이 다르게 나타나는 미. 체 나눔으로 인해 길과 여정이 생기고 그 사이에 감정이 개입하는 미.
인체비례의 미학	공간의 높이, 크기, 규모의 척도가 좌식생활에 알맞은 인간을 기준으로 설정함.
작용의 미학	보편적 대칭구도를 거부하고 자연 지세에 순응하여 비대칭을 선호하는 순응의 미.
각의 미학	모서리가 조금씩 열려있는 사각형 마당공간의 투명하고 개방적인 상호관입의 미.
뜸의 미학	공간의 긴 동선을 지나며 많은 생각을 유도하는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생각과 시간의 틈.

시선의 미학	비정상적으로 시선의 각도를 어지럽히고 공간의 연속적 시선으로 긴장감을 유발하는 불안감.
놓여짐의 미학	인간의 신체와 생활양식에 따른 가구의 규모와 여유 공간으로 인한 과장된 미.
어울림의 미학	자연과의 조화를 이룬 분산식 배치의 집합적 성격에 의한 채들의 유기적 결합에 의한 균형.
투명의 미학	중첩과 관입으로 표출되는 공간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는 모호한 공간의 투명함.
비움의 미학	고정화된 기능이 아닌 비워둠으로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공간의 구성, 역할들의 미.
접힘의 미학	접고-펼치고-접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나타나는 공간이나 생활의 작용과 변화를 표현하는 미.

28항목을 정리하여 18항목을 선정하였다.

전통주거 공간을 미적 관점에서 본다는 것은 전통주거 공간이 인간 중심의 의식체계와 사상이 담긴 삶의 공간으로서 단순히 시각적이거나 조형적인 특성이 아닌 체험적 공간으로서의 총체적인 특성을 본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본 전통주거 공간의 미적 특성을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미적 특성(전경으로서의 미적 특성), 심리적으로 나타나는 미적 특성(후경으로서의 미적 특성), 현상·심리적으로 나타나는 미적 특성(전경·후경으로서의 미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미적 특성에는 선의 미, 구조의 미, 바라봄의 미, 각의 미, 시선의 미, 작용의 미, 심리적으로 나타나는 미적 특성에는 절제(소박)의 미, 틈의 미, 해학(은유, 낭만)의 미, 뜸의 미, 어울림(융합)의 미, 비움의 미, 현상·심리적으로 나타나는 미적 특성에는 인체비례의 미, 놓여짐(질서)의 미, 빛의 미, 사이의 미, 접힘의 미, 투명의 미로 나누었다.

18항목으로 나누어진 미적 특성을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미적 특성, 심리적으로 나타나는 미적 특성, 현상·심리적으로 나타나는 미적 특성으로 구분한 배경은 아래 <표5>와 같다

아래 표와 같이 도출한 미적 특성들은 시각적이거나 구성이나 결합에서 일어나는 전이성, 연속성, 가변성에 대한 인지적인 구조의 특성들은 현상적인 미적 특성으로, 감성적으로 느껴짐으로 인해 일어나는 전이성, 연속성, 가변성에 대한 구조의 특성들은 심리적인 미적 특성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짐에 의한 감성적인 변화에 의해 일어나는 전이성, 연속성, 가변성에 대한 구조의 특성들은 현상·심리적인 미적 특성으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다.

표 5. 미적 특성 구분에 대한 배경

구 분	미적 특성	배 경 내 용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미적특성	선의 미	시각적으로 보여 지는 선에 대한 미
	구조의 미	공간의 구성 원리로서의 미
	바라봄의 미	시각적으로 관망하는 미
	각의 미	채와의 결합에서 얻어지는 구성의 미
	시선의 미	시각적 방향에 따른 미
	작용의 미	기존의 상황에 대한 순응의 미

심리적 으로 나타나는 미적특성	절제(소박)의 미	감성적이거나 인식에 의해 느껴지는 미
	틈의 미	지각에 의해서 조율이 가능한 여유미
	해학(은유, 낭만)의 미	사물이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가 담긴 미
	뜸의 미	시간적 흐름과 정서의 관계 미
현상·심리적으로 나타나는 미적특성	어울림(융합)의 미	조화에 의한 안정된 감정에 대한 미
	비움의 미	비워둠으로 나타나는 심리 변화의 미
	인체비례의 미	인체 치수에 의한 규모에서 느끼는 편안함의 미
	놓여짐(질서)의 미	공간을 채우는 물질적인 것에 느끼는 심리의 미
	빛의 미	현상적 상황을 거치는 동안의 빛의 변화 미
	사이의 미	현상적 상황 사이에서 변화하는 심리의 미
	접힘의 미	단힘과 열림에 의해 나타나는 이중적 미
투명의 미	현상적인 빛으로 인한 심리적인 미	

#### 4 결 론

본 연구는 한국 전통주거의 미적 관점에 의한 공간 연계성 연구에 대한 1차 연구물로 N. 하르트만의 사물, 현상의 미학 해석에 대한 공간의 전경과 후경, 미적 대상의 구조와 존재형태, 건축의 외면층과 내면층에 대한 미학적 이론 개념을 근거로 하여 전통주거 공간의 미적 특성을 관련 선행 연구 내용과 연구자의 관찰, 생활 체험 등을 기초로 하여 18항목의 미적 특성들을 도출하였다. 선의 미, 구조의 미, 바라봄의 미, 각의 미, 시선의 미, 작용의 미, 절제(소박)의 미, 틈의 미, 해학(은유, 낭만)의 미, 뜸의 미, 어울림(융합)의 미, 비움의 미, 인체비례의 미, 놓여짐(질서)의 미, 빛의 미, 사이의 미, 접힘의 미, 투명의 미 등이 도출된 미적 특성 들이다. 공간을 미적 관점으로 해석, 체험함이란 공간이 단지 시각적, 감각적, 조형의장적인 현상적 공간이 아닌,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생활과 체험의 총체적인 4차원의 참 공간으로 인식되어 실제적인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추측이나 예감으로 공간의 가치, 현상, 체험들을 유추해 낼 수 있는 심리적이고 철학적인 영역으로까지 해석하여 인간생활에 나타나는 객관적, 주관적 행위들에 대한 반응 모든 사물이나 상황의 미적 관점에서의 인식, 체험에는 시지각적 체험의 현상적 관점과 감성적 체험의 심리적 관점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현상적 미적 관점에는 선의 미, 구조의 미, 바라봄의 미, 각의 미, 시선의 미, 작용의 미 등이 있으며, 심리적 미적 관점에는 절제(소박)의 미, 틈의 미, 해학(은유, 낭만)의 미, 어울림(융합)의 미, 비움의 미 등이 있으며, 현상·심리적 미적 관점에는 인체비례의 미, 놓여짐(질서)의 미, 빛의 미, 사이의 미, 접힘의 미, 투명의 미 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시적 현상으로 체험할 수 없는 한국 전통주거 공간의 특성들을 미적 관점으로 분석하여 비가시적이며 심리적인 특성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미적 관점에서의 한국 전통주거의 공간 연계성 특성들은 현대 주거 공간에서도 소극적이었던 외면되어 온 전통적 요소들을 재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전통주거 공간의 문화와 전통성은 잠재되어 있는 주체성에 대한 욕구를 불러 일으켜 세계화의 여건이 될 수 있다.

#### 참고문헌

1. 정무웅, 한국 전통건축 외부공간의 계층적 질서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4
2. 박경애, 문화기호로서 한국 전통공간의 해석과 의미론적 공간디자인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국민대 테크노 디자인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3. 이영미, 한국 전통건축의 공간해석을 위한 존재론적 접근,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4. 이재훈, 심상에 의한 건축공간구성 방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5. 김봉렬, 전통건축 속의 공간적 전이, 대한 건축학회 '건축', 1993.
6. 권태일, 이동언, 근원적 다양성으로 본 접힘의 건축, 대한 건축학회논문집 제20권 10호, 2004.
7. 김국선, 미래 주거공간을 위한 전통주거 공간의 정체성, 건축과 인테리어, 2004.
8. Andreas C. Papadakis · Lucien Steil, Tradition · Architecture, MIT Press, 1987.
9. 바움가르텐, Aesthetica, 1750.
10. N.하르트만, 전원배 옮김, 미학, 을유문화사, 1995.
11. 강영환, 집으로 보는 우리문화 이야기, 웅진닷컴, 1992.
12. 김봉렬, 이 땅에 새겨진 정신, 이상건축, 1999.
13. 권태문, 건축미학과의 만남, 시공문화사, 2001.
14. 김경수, 건축미학산책, 발인, 2000.
15. 신영훈,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한옥, 현암사, 2000.
16. 우경국, 관계, 흐름, 건축, 현대건축사, 1998.
17. 임석재, 한국 전통건축과 동양사상, 북하우스, 2005.
18. 정무웅, 생활정서와 공간의 전이성, 대한건축학회지 '건축', 1984.
19. 주남철, 한국미학시론, 고대한국학연구소, 1994.
20. 최부득, 건축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미술문화, 2001.
21. 장피에르 바르니에, 문화의 세계화, 주형일 역, 한울출판사, 2000.

논문접수일 (2010. 10. 26)  
 심사완료일 (1차 : 2010. 11. 09, 2차 : 해당없음)  
 게재확정일 (2010. 12. 13)